

사설

종교지도자들의 침묵

9월 11일 미 테러 참사, 그리고 10월 10일의 아프간 폭격, 무너진 세계 무역센터의 콘크리트 잔해, 그리고 폐허가 된 아프간의 카담 마을. 21세기 인류 문명의 극사실적인 초상이다.

이런 테러와 전쟁 원인의 하나로 종교를 든다. 직접 원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본연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일리' 있는 지적이다.

그러나 어떤가? 세계의 수많은 종교 지도자 중 누구도, 자신의 전 인격을 건 종교 지도자다운 무게가 실린 발언을 하지 않고 있다. 평화의 메신저라는 달라이 라마조차도, 9월 16일 비폭력을 촉구하는 원문적인 발언 후로는 아무 말이 없다. 바티칸의 교황도 침묵 중이다. 우리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지난해 UN본부에 모여 '세계평화선언'을 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다. 여의도 광장에 수만 명의 군중을 불러 모으는 절대적 권위를 지닌 분들도 여전히 말이 없다. 불교 종단의 큰 스님들도 이런 때는 꼭 신속에 계신다.

물론 여러 종교 단체에서 테러와 전쟁을 반대하는 성명을 내고 시위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원론적인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흔히 보듯이, 너무도 지당한 말씀은 현실

적으로 공허하다. 한편으로, 아직도 종교가 '전쟁의 원인'이 될 만큼의 영향력이라도 있기는 한가? 하는 침담한 회의가 들기도 한다. 철저히 파편화된 개인의 안심과 인식에만 관심을 두는 상업화된 종교가 어떻게 공동선을 말할 수 있을 것인가. '포스트 모던' 한 문명은 '탈산업' '탈권위' '탈종교' 만이 아니라 '탈종교' 까지 이른 것이지도 모른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현대문명의 유일신은 '자본'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지금 세계에는 유령이 배회하고 있다. 이 유령은, 살상 목적의 탄자군이 되기도 하고 핵 폭탄이 될 가능성도 다분한 놈이다. 그 유령의 이름은 폭력이다.

물리력을 기초로 한 '항구적 자유'는 말장난이다. 테러 또한 '성전(지하드)'일 수 없다. 더 이상 지켜보서는 안된다. 21세기가 살육과 광기의 세기로 기록되지 않도록 종교 지도자들이 나서야 한다. 분노에 찬 영혼에 평화의 영감을 불어넣어, 그들의 손과 발을 '선'한 일에 쓰도록 해야 한다. 폭력을 흡수하는 진정·무력화시킬 수 있는 힘은 허공(虛空) 즉 종교만이 창출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인적인 차원 외에 불교계가 가족간의 종교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함께 힘써야 할 영역이 있다. 우선은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신행의 자리를 늘려야 한다. 사찰마다 청소년과 아동, 나아가 유년기의 아이들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 부모들이 자식들을 자연스럽게 올바른 믿음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을 위한 캠프 등에 대한 과감한 지원도 필요하다. 또 자식들을 올바른 신앙으로 이끄는 근본은 부부가 같은 신앙을 가지는 것임을 바로 보고, 불자끼리 부부로 만날 수 있도록 연을 맺어주는 일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할 필요도 있다.

전법을 불자의 근본적인 사명으로 새롭게 인식하고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부처님 품으로 인도하는 개인적 차원의 노력과 미래불교를 일구려는 범 불교계적인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가족부터 부처님 품으로

불교신자들이 타 종교에 비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종교가 일치하지 않는 비율이 높다 한다. 최근 한국사회학회 연구발표회에서 발표된 은기수 교수의 '한국의 가족과 종교-부모 세대와 자식세대의 종교적 동질성'이라는 논문은 가정 내의 종교간 갈등이 불교 신자들이 겪는 보편적인 문제이며, 불교계가 함께 주목해야 할 일임을 새삼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를 불교의 종교적 관용성이 낳은 결과라고 자위하면서 적당히 넘겨버서는 안된다. 오히려 그 관용성 때문에 일부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종교를 믿는 가족으로부터 부당하게 압박을 받는 일이 더 많다는 것도 깊이 생각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불법을 가족에게 전하는 데 적극적으로 못했던 의식을 하루 빨리 고쳐야 한다. 가족이 함께 위없는 진리에 귀의하는 일이야말로 단순히 가족 화합 차원이 아니라 원만한 신앙생활의 토대라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개인적인 차원 외에 불교계가 가족간의 종교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함께 힘써야 할 영역이 있다. 우선은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신행의 자리를 늘려야 한다. 사찰마다 청소년과 아동, 나아가 유년기의 아이들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 부모들이 자식들을 자연스럽게 올바른 믿음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을 위한 캠프 등에 대한 과감한 지원도 필요하다. 또 자식들을 올바른 신앙으로 이끄는 근본은 부부가 같은 신앙을 가지는 것임을 바로 보고, 불자끼리 부부로 만날 수 있도록 연을 맺어주는 일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할 필요도 있다.

전법을 불자의 근본적인 사명으로 새롭게 인식하고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부처님 품으로 인도하는 개인적 차원의 노력과 미래불교를 일구려는 범 불교계적인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태고종(총무원장 해초)은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담양 용화사에서 그동안 거의 끊기다시피한 '해동울맥 전수식'과 더불어 '구족계

통합중대 때 조계종 종정을 세 차례 역임하고 태고종이 창종된 이후 태고종 종정을 또 두 차례 역임한 대울사 국목담 스님(1896~1981)의 해동울맥이 손상된 수진스님(용화사 주지)에게 전수된다.

태고종(총무원장 해초)은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담양 용화사에서 그동안 거의 끊기다시피한 '해동울맥 전수식'과 더불어 '구족계

보살계 수계산람'도 봉행한다. 범회는 11월 6일 오후 3시 입재하여 10일 오전 9시부터 구족계와 보살계를 살하고, 오전 11시 해동울맥 전수식이 전통불교의식에 따라 봉행 예정이다.

울맥 전수를 위해 제10대 울사인 범종 스님(원효종 종정)은 이미 대전 보문사에서 1백일 묵언정진을 마쳤으며 수진 스님도 현재 용화사에서 1백일 기도정진에 들어가 전수식 일정에 맞춰 회향한다.

이경숙 기자

불교중심지 조계사 인근 90m 고층 빌딩 건축

종로일대 전통문화 훼손위기

서울시 우정충국 공원 조성계획과 배치

조계종 총무원-조계사 대책위 구성

조계사와 인접해 있는 종로구 수송동 구 삼양식품 자리에 24층의 고층빌딩 건립 공사가 착공됨에 따라 한국불교 중심인 조계사의 수행·문화 환경이 크게 위협받게 됐다. 특히 고층빌딩 건립은 이 지역 일대를 경복궁-우정충국-조계사-인사동-창경궁으로 이어지는 '전통문화거리'로 조성하겠다는 서울시의 방침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정대)과 조계사(주지 지홍)는 이와 관련해 '대책위원회'를 구성,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물리적 방법을

동원해 종로 일대의 전통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조계사의 수행 환경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홍스님은 "빌딩이 들어설 자리는 서울시와 조계사가 합의해 추진 중인 우정충국 공원화 계획은 물론 조계사를 포함한 이 지역 일대의 전통문화 환경을 훼손하는 것으로, 건축 허가는 마땅히 취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책위원회는 조만간 '건축 금지 가처분 신청 및 건축 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관련 시민단체와 연대해 반대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조계사 신도 200여명은 19일 종로구청 앞에서 조계사 인근 구 삼양식품 자리에 들어서는 빌딩의 신축허가취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건축물 부지 반경 1km 내외에는 조계사를 포함해 경복궁, 인사동, 탑골공원, 우정충국 등의 공원 및 여가 시설과 원각사지 10층 석탑(국보2호), 탑골공원 팔각정(유형문

화재 73호 보신각지기념물 10호) 등의 문화재 등이 위치해 있다. 또 조계사 대웅전, 목석가좌불상, 후불탱화 등 서울시 지방유형문화재 등도 소재하고 있어, 24층(높이

현대만평

박구원



이런 억지가...

북한산 관통로 저지 시위

불교대책위 24일 의정부서...서명운동도

북한산 국립공원을 관통하는 서울의과 순환도로 건설저지를 위해 불교계가 대규모 시위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의정부시 불교사암연합회와 조계종 제25교구 본사인 봉선사대책위, 불교환경연대 등으로 구성된 '불교대책위원회' (상임공동대표 지섭 스님)는 15일 불교종단협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4일 오후 2시 의정부시청 앞에서 제1차

결의대회를 갖는 등 도봉산을 관통하는 외곽순환도로의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지섭스님은 "북한산 관통도로의 건설로 인근 사찰 30여 곳이 직간접적으로 수행환경에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며, 총 5곳의 터널공사에 따른 지하수맥 차단으로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031)848-6114

김재경 기자

태고종 '해동울맥' 복원

11월10일 수진스님에 전수

통합중대 때 조계종 종정을 세 차례 역임하고 태고종이 창종된 이후 태고종 종정을 또 두 차례 역임한 대울사 국목담 스님(1896~1981)의 해동울맥이 손상된 수진스님(용화사 주지)에게 전수된다.

태고종(총무원장 해초)은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담양 용화사에서 그동안 거의 끊기다시피한 '해동울맥 전수식'과 더불어 '구족계

보살계 수계산람'도 봉행한다. 범회는 11월 6일 오후 3시 입재하여 10일 오전 9시부터 구족계와 보살계를 살하고, 오전 11시 해동울맥 전수식이 전통불교의식에 따라 봉행 예정이다.

울맥 전수를 위해 제10대 울사인 범종 스님(원효종 종정)은 이미 대전 보문사에서 1백일 묵언정진을 마쳤으며 수진 스님도 현재 용화사에서 1백일 기도정진에 들어가 전수식 일정에 맞춰 회향한다.

이경숙 기자

日 고려사 휴전선에 평화센터 세운다

28일 평화의 종 봉안·천도제도

일본 고려사가 휴전선에 일본 징용 희생자 유골이 안치되는 평화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재일본 조계종 총본산 고려사(주지 태연)는 28일 평화의 종 봉안식과 2차 세계대전 일본징용 희생자 천도제를 갖고, 휴전선에 평화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남북한 정부와 UN에 공식 건의키로 했다.

고려사가 추진 중인 휴전선

평화센터는 일본 강제징용 한인 희생자 유골을 봉안하여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고, 남북이 합동으로 추모재를 지내는 공간이 되게 한다는 계획이다. 건립비용은 일본정부가, 관리는 남북한과 UN이 맡는 방침도 세워지고 있다. 현재 70여 만기에 이르는 한인 희생자 유골은 일본 각지의 신사와 후생성 지하창고에 방치된 상태다.

김원우기자

국제포교사 한국체협

30명 해인사등 방문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주최하고 문화관광부가 후원하는 제2회 해외거주 국제포교사 한국문화체험행사가 15일부터 18일까지 30여명의 국제포교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3박4일간 안동 하회마을, 영주 부석사, 해인사 팔만대장경, 경주 남산 석굴암 불국사 순례, 도자기 만들기, 김치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가한 국제포교사들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현지인들에게 한국 문화와 접목한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포교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관련인터뷰 4면>

김원우기자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선거

31일~11월3일 후보등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이 신임 회장 후보 등록기간을 10월31일부터 11월3일까지로 결정하고 153명의 대의원을 확정하는 등 제3대 회장 선거에 따른 일정을 23일 공고했다.

신임 회장을 선출할 153명의 대의원은 조계종 24개 교구본사 및 4개 광역지역 신도회, 종단 등록 13개 신행단체 대표자들로 구성됐다.

한명우 기자

장인의 혼이 담긴 목조각 작품

성불 조각원에 있습니다

- 전통 불교 목공예 전문 성불조각원은 모든 작품을 옛 전통기법으로 재연 합니다.
- 사찰에 필요한 모든 목조각을 주문 제작 합니다.

취급품목 : 목불상, 사천왕, 16나한, 500나한, 법상, 가마, 불전함, 경상 등

문의전화: 033-263-1102
017-379-0590

전국대리점 모집